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일탈 친구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지위 비행·폭력행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이윤영¹

¹서울디지털대학교

A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ies and delinquent friend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tatus deviance-violence by hierarchical regression

Youn-Young, Lee¹

¹Seoul Digit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ies and delinquent friend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tatus deviance-violence by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this purpos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1,392 multicultural adolescents nationally collected from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 2016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MAPS). The results from the hierarchical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only status deviance was foun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ies such as volunteer club or school club and delinquent friend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other words, in the group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ith high levels of status deviance, as the level of delinquent friends relationship increased, the level of leisure activities gradually increas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status deviance can be a factor that can moderate the leisure activitie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even in the environment with a high level of delinquent friends. Second, however, violence 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as not foun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ies and delinquent friends. In conclus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ed that leisure activitie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ere important variables affe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us deviance and delinquent friend relationship.

Key words : leisure activities, multicultural adolescents, status deviance, violence, delinquent friends

주요어 : 여가 활동, 다문화청소년, 지위비행, 폭력, 비행친구

이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제공을 받아 연구되었음.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Youn-Young

Seoul Digital University, Gonghang-daero, Gangseo-gu, Seoul, Korea

Tel: +82-02-2128-3042, Fax:+82-02-2128-3006, E-mail: youngcnn@naver.com

Received: February, 8, 2019 Revised: February, 26, 2019 Accepted: March, 15, 201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출산율의 감소 및 결혼 이민자의 증가로 인하여 한국사회의 가족구조는 다양화, 다변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2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다문화 가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다문화 혼인은 전체 혼인 264,635건 중 8.3%인 21,9178건을 차지하였고 다문화 가족의 증가를 반영하듯 다문화 출생자가 2017년의 경우 20명 중 1명인 5.2%에 이르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2018). 이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현재 전체 학생 수 중 다문화 초등학생은 93,027명, 중학생 18,068명, 고등학생 10,688명으로 총 122,212명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18). 이처럼 지난 2012년 4만 7,000명 수준이었던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6년간 2.6배나 증가하였으며,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반면 다문화 가정 학생은 가파르게 늘면서 전체 학생 수에서 차지한 비중도 2.2%에 다다르고 있다(서울경제, 2019). 그런데 합계 출산율이 1.05 수준(통계청, 2017)인 상황에서 노령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인구 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한해 2만 쌍 이상의 다문화 가정이 나오고 있고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다문화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통합 및 미래의 발전적 측면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한국인 부모를 둔 자녀에 비해 어떠한 성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관련 영역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현식, 김두섭, 2014; 전경숙, 2008; 조운동, 강은주, 고희경, 2013; 김현식, 2016:42 재인용). 그러나 사실상 다문화 가족이 2000년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만큼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연구는 드문 것이 현실이고 대부분의 연구는 초등학생에 집중되어 왔으며 주로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가족 유형(김현식, 2016), 사회적 지지(김춘경, 조민규, 2018) 등 개인보다는 구조적 연구에 기반하고 있다.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아동기였던 다문화 가정 2세들이 한국의 일반 교육과정을 거치며 성장하여 중,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 과정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조혜영, 김경임, 2018:264). 그러나 청소년기는 인간의 전 생애에서 변화가 가장 많은 시기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을 질풍노도의 시기, 주변인 등 다양한 표현으로 지칭하며 청소년의 혼란을 청소년기의 특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그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정혜원, 박정선, 2008:274).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은 청소년기 특성상 겪게 되는 중요한 인지적, 사회적 변화들을 경험함과 동시에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겪는 가정 내외의 특수한 갈등과 어려움에 적응해야 하는 도전적인 상황에 처해있고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학교나 공공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외부 체계와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차별 경험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강화, 배은경, 2018; 허청아, 그레이스정, 2018; Fisher, Wallace & Fenton, 2001; Hughes, 2003). 이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 관련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사회부적응 문제 및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김춘경, 조민규, 2018:502). 경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경기도의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업 중단자는 2012년 278명에서 2013년 328명, 2014년 435명으로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병호, 2017). 다문화 중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일반 중학생의 3배가 넘으며 고등학교

의 경우 이보다 훨씬 높아져 2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서울경제, 2019.1.13.). 특히 학업을 중단한 이유로 ‘학교생활 및 문화가 달라서’라는 답변이 1순위로 나타나 다문화 청소년이 원활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비행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심각한 실정이다(국제신문, 2017.5.22.)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정체성 혼란과 사회문화적 차별을 이중적으로 겪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을 높이고 원활한 교우관계를 위한 정책적 제언이 절실하다고 보며 다문화 청소년의 방과 후 여가활동이 일탈 친구 및 자신의 지위 비행과 폭력 등 부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이 방과 후 경험하는 체육 및 봉사, 동아리 활동 등 여가활동이 일탈 친구와 교류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과정에서 본인의 지위 비행 및 폭력행위와 여가활동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2. 가설 설정의 이론적 근거

1) 여가 활동이 일탈 친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

지금까지 여가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일탈 친구와와 교류 등과 같은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최근에 들어서야 청소년 발달에 있어서 여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부터 여가가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조아미, 2005:86), 여가 동반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여가와 일탈 친구의 관계도 조명 되고 있다. Meredith, Kenetia, Timothy 와 Gleen(2014)은 무엇보다 방과 후 여가의 활용은 청소년의 발달 및 일탈방지의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방과 후 활동은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우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이라면서 방과 후 여가활동과

교우 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Miller, Fisher & Cohen, 2001). 그러나 장계영(2012)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참여가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청소년에게 여가는 문제행동이나 비행을 증가시키는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여가 동반자가 범죄 및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면서 여가 활동과 일탈 친구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특히, Akers(1979), Matsueda(1982), Shaw 와 McKay(1969), Sutherland와 Cressey(1978) 등은 청소년 일탈의 원인에 대한 논의 중에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요인이 일탈 친구라는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일탈 친구가 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곧 청소년들은 여가 및 일상생활에서 일탈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 일탈에 대한 기술이나 동기, 가치 등을 학습하게 되어 일탈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박현수, 2008:2). 이처럼 일탈 친구와의 접촉은 청소년의 여가 활용 및 학교 생활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는 이론적 측면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방과 후 여가활동이 일탈 친구의 교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여가활동과 일탈 행동(지위 비행, 폭력행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

여가활동이 일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스포츠계에서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은 청소년의 사회적, 심리적 발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연구도 있으나, 여가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청소년일수록 일탈 친구와의 교류가 많아지고 일탈 행동을 많이 한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Anouk, Eveling, Claudia, Trudy & Geert, 2016: 655).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 활동 유형에 따른 일탈 행동을 분석한 허준, 이윤호(2012)의 연구는 TV시청 등의 여가활동은 지위 비행 감소에 도움이 되었지만 스포츠 여가 활동 등은 음주비행경험과 관계가 있다고 분석하며 여가

유형에 따른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조남홍(2011)은 여가스포츠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면서 여가스포츠가 지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설명하였다. Benedict와 Klein(1997)의 경우 여가활동은 청소년의 약물 사용,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일탈과 영향을 맺고 있다고 보았고, Barnes, Wlete와 Hoffman(2002)도 특정한 여가활동의 참여가 일탈에 관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여가 활동은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활동과 일탈 예방은 여가선용에 의존한다는 측면에서 김상수(2000)는 불건전한 여가가 청소년 일탈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임성호, 문한식(2017)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스포츠 여가 활동 참여와 또래 관계에 대해 분석하면서 스포츠 여가 활동은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향상시키는 수단이 된다며서 매개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고, 비행청소년에게 여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공격성 및 사회재적응 등을 분석한 박종구(2012)는 여가활동이 비행청소년의 심리치유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가활동이 일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주로 Hirshi의 사회유대이론에 기인하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 여가 활동의 참여는 학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책임수준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비행으로 갈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한다(Hirshi, 1969). 한편 Anouk et al(2016)은 여가와 일탈이 관계가 있다는 관점에서 여가스포츠와 일탈 유형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조절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여가와 일탈에 관한 각각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여가와 일탈이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는 일치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가와 일탈 관련 선행연구에 바탕을 두고 여가활동과 일탈 행동은 관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방과

후 여가활동과 지위 비행 및 폭력 행위의 조절 효과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일탈 행동(지위 비행, 폭력행위)과 일탈 친구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

청소년의 일탈을 설명할 때 일탈 친구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일탈 행동이 일탈 친구에 선행한다는 일탈선행론을 주장하는 경험적 연구는 주로 1990년대 Gottfredson과 Hirshi의 범죄일반이론의 입장에서 진행되었다(이완희, 황성현, 이창한, 문준섭, 2018:227-232). 자기통제이론에 기반한 이 연구들은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들이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일탈 친구는 일탈을 저지른 후에 만나게 된다고 설명한다. 박현수(2008)는 한국청소년패널 조사 자료를 통해 청소년 일탈의 발전 경로를 분석하면서 자신의 일탈행위를 통해 일탈 친구를 선택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김준호, 박미성(1993), 노성호(1993), 이성식(1994)의 연구도 일탈행동이 일탈 친구에 영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일관적으로 일탈 행동이 일탈 친구와 상호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일탈 친구의 관계에 있어 일탈 행동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연구모형

이상의 선행연구 및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변인간 인과관계로 설정된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1>과 같으며 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여가활동은 유형에 따라 학습 관련 여가 활동(여가활동1)과 참여 관련 여가활동(여가활동2)으로 구분하였으며, 일탈 행동은 이론적 개념에 따라 지위 비행과 폭력행위로 구분하여 가설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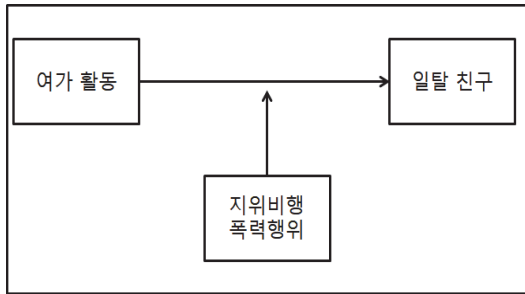


그림1. 여가활동 및 일탈 친구의 관계에 있어 청소년 일탈의 조절 효과 분석 모형

가설1. 여가활동과 일탈 친구의 관계에서 지위 비행은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1.1. 학습관련 여가활동과 일탈 친구 관계에서 지위 비행은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1.2. 참여관련 여가활동과 일탈 친구 관계에서 지위 비행은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여가활동과 일탈 친구의 관계에서 폭력 행위는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2.1. 학습관련 여가활동과 일탈 친구 관계에서 폭력 행위는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2.2. 참여관련 여가활동과 일탈 친구 관계에서 폭력행위는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를 제공받아 진행되었다. 다문화 청소년 패널구축은 2011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 1,600명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이 조사에서 의미하는 다문화 청소년이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 자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한정하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모집단 분포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패널의 경우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6).

본 연구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연구자에게 제공된 6차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2016년 중학교 3학년인 다문화 청소년 1,329명이며,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특징을 <표 1>에서 살펴보면, 남학생이 49.2%, 여학생이 50.8%이며, 중학교 3학년의 만 나이 기준인 15세가 88.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인권이 2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국적은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96.5%로 가장 높았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		n	%
성별	남학생	654	49.2
	여학생	675	50.8
나이	14세	101	7.6
	15세	1,177	88.6
	16세	45	3.4
	17세	5	.3
	18세	1	.1
거주 지역	서울	140	10.5
	경인(경기도+인천)	345	26.0
	충청 및 강원권	260	19.6
	경상권	304	22.9
지역 규모	전라 및 제주권	280	21.2
	대도시	346	26.0
	중소도시	599	45.1
부모 외국인 여부	읍/면	384	28.9
	아버지	42	3.2
	어머니	1,283	96.5
	아버지+어머니	4	.3

표본은 16개 시/도 및 학교를 층화변수로 하여 비례 배분하여 추출하였으며 6차년도 조사는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적용한 표본학교 추출방식인 확률비례통계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 PPS)은 동일한 조사 기간 내에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양계민, 황진구, 연

보라, 정윤미, 2018:36). 1차년도 조사는 학교를 통한 가구 섭외로 이뤄졌고, 이때 가구 기본 정보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2차년도부터는 조사원이 별도로 가구를 컨택, 방문하여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를 조사 도구로 하여 진행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CAPI 프로그램은 문항 간 논리 확인, 응답 오류 차단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의 신뢰성과 자료처리의 효율성, 사용자의 편리서 면에서 이점을 지니고 있다(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1:122, 양계민 외 2018:83 재인용).

2. 연구 도구

1) 독립변인의 측정

먼저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방과 후 여가생활은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2010)의 문항을 수정하여 양계민 외(2018)가 적용한 척도가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학교 정규 수업제외)을 일주일에 얼마나 합니까?”라고 물어봤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공통성이 낮은 2개 문항을 제거하고 총 5개 문항을 고유치 값 1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2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때 음악, 미술, 체육 등 학습 관련 여가활동을 ‘여가활동1’ 변인으로, 봉사 및 교내 동아리 등의 활동을 ‘여가활동2’ 변인으로 명명하였다. 이때 응답범주의 경우 ‘1주일 간 참여 횟수’로 측정되었으며 미참여인 경우는 0으로 부여하였다.

표 2. 독립변인에 관한 요인분석

		공통성	요인
학습 관련 여가 (여가활동1)	음악	.359	.495
	미술	.503	.637
	체육	.495	.703
참여 관련 여가 (여가활동2)	봉사	.366	.578
	교내 동아리	.598	.753
Eigenvalue % of Variance		1.210	1.109
Cumulative %		24.210	46.396

2) 종속 변인의 측정

다음으로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인 일탈 친구의 경우 김순규(2011)의 척도를 양계민 외(2018)가 수정, 적용한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 일탈 친구 변인은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선택하라”라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1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문항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 ‘일탈 친구’로 명명하였다. 종속 변인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Cronbach’s alpha는 .856으로 신뢰성 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응답범주는 각 문항별로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0으로 해당되는 경우 1로 코딩되어 총 0점부터 6점까지 구성되었다.

표 3. 종속 변인에 관한 요인분석

	공통성	요인
결석이 잦은 가까운 친구/선후배가 있다	.453	.673
담배를 피는 가까운 친구/선후배가 있다	.728	.853
일탈 음주를 하는 가까운 친구/선후배가 있다	.726	.852
친구 학교징계를 받은 가까운 친구/선후배가 있다	.619	.787
경찰서에 간 적 있는 가까운 친구/선후배가 있다	.545	.739
가출 한적이 있는 가까운 친구/선후배가 있다	.541	.735
Eigenvalue % of Variance		3.612
Cumulative %		60.194

3) 조절 효과 측정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일탈 친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여가활동과 일탈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신의 일탈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조절변인의 경우 이경상, 김진호, 오해섭, 김희진(2003)의 문항을 수정, 보완한 이경상, 백혜정, 이종원, 김지영(2011)의 문항을 다시 수정 보완하여 적용한 양계민 외(2018)의 척도를 사용하여, 각 일탈 유형 항목별 지난 1년간 경험 여부 및 횟수로 측정되었다. 이때 다문화 청소년의 일탈이

란 일반적으로 청소년 일탈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청소년 일탈에서 법적 위반은 소년범죄에 속하고, 법적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도덕적인 위반은 지위 비행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법적 위반행위란 형벌법령 위반인 폭력, 사기 행위 등이 속하며 지위 비행은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에 기대되는 규범을 위반한 행동으로 음주, 흡연, 가출 등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지위 비행은 나이가 들어 청소년기를 벗어난 성인이 되면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정현주 외, 2011:14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4>와 같이 청소년비행에 대한 이론적 설명에 따라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술을 마신 적이 있다.’, ‘가출을 한 적이 있다’ 등은 청소년기를 벗어나 성인이 되면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보며 세 문항에 대해 지위 비행의 1개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행위’,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행위’는 형벌법령 위반행위라는 측면에서 ‘폭력행위’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지위 비행과 폭력행위와 여가활동의 조절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변인을 활용하였는데, 모형1에서는 독립변인을, 모형2에서는 조절변인을 추가했고, 마지막으로 모형3에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서로 곱하여 상호작용 항을 만들어 투입, 분석하여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표 4. 조절변인에 관한 요인분석

	공통성	요인
지위 비행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597 .772
	술을 마신 적이 있다	.835 .914
	가출을 한 적이 있다	.762 .873
	Eigenvalue % of Variance	2.193
	Cumulative %	(73.110)
폭력 행위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행위	.542 .736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행위	.542 .736
	Eigenvalue % of Variance	1.084
	Cumulative %	(54.209)

3. 자료처리 방법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일탈 친구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SPSS 통계프로그램 21.0버전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다문화 청소년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여가활동, 일탈 친구, 청소년비행에 대해 요인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요인분석은 요인 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요인구조가 가장 뚜렷할 때까지 요인을 회전시키는 직각회전 방식의 하나인 베리맥스(varimax)를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고유치 1 이상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베리맥스는 요인행렬의 열(column)의 분산 합계를 최대화함으로써 열을 단순화시키는 방식이다(이학식, 2008:346). 셋째,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일탈 친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여가활동과 청소년비행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독립변인, 조절변인,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상호작용 항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Ⅲ. 결과

1. 각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먼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등 각 변인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는 절대값이 .80을 넘는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다중공선성의 진단과 개별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5>와 같이 개별 변수들 간의 상관이 .80 이상을 넘지 않으므로 상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발생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강화, 배은경, 2018:16).

표 5.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여가활동1 (1)	1	.037	.156***	.061*	.013
여가활동2 (2)		1	.077*	-.014	-.010
일탈 친구 (3)			1	.103***	.119***
지위 비행 (4)				1	.335***
폭력행위 (5)					1

*** α .001, ** α .01, * α .05 수준에서 유의미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일탈 친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지위 비행 및 폭력행위 등 청소년 일탈이 조절변인으로 조절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절 효과가 성립하려면 모형1, 모형2, 모형3에서 유의확률 F변화량이 유의미해야 하며, R제곱의 설명력이 순차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따라서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를 실시하였다.

먼저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가활동1 변인과 지위 비행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모형1에서 성별, 나이 등의 통제 변인과 여가활동1 등 독립변인을, 모형2에서 통제 변인, 독립변인과 지위 비행 등 조절 변인을, 그리고 모형3에서 통제변인, 독립변인,

표 6. 여가활동1, 일탈 친구 관계에서 지위 비행의 조절 효과

모형	R	R ²	수정된 R ²	추정 값의 표준 오차	통계량 변화량			유의확률 F 변화량	
					R ²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1	.204	.042	.040	1.458	.042	19.256	3	1325	.000
2	.223	.040	.047	1.452	.008	10.769	1	1324	.001
3	.223	.040	.046	1.453	.000	.207	1	1323	.649

종속변인 일탈 친구

*** α .001, ** α .01, * α .05 수준에서 유의미

*모형1 예측값: (상수), 성별, 나이, 여가활동1

모형2 예측값: (상수), 성별, 나이, 여가활동1, 지위 비행

모형3 예측값: (상수), 성별, 나이, 여가활동1, 지위 비행, 상호조절

조절변인 및 독립변인과 여가활동1 변인과 지위 비행의 상호작용 변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유의확률 F변화량이 모형3에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여가활동1 변인과 지위 비행이 일탈 친구에 미치는 조절 효과는 확인할 수 없다.

다음으로 봉사 및 교내 동아리 활동 등 여가활동2와 일탈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 지위 비행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3단계에 걸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7>과 R제곱은 모형1에서 2.7%, 모형2에서 3.4%, 그리고 모형3에서 4.2%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 F변화량 역시 모형1과 모형2에서 각각 .000, 모형3에서 .001로 0.05수준보다 작기 때문에 조절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7. 여가활동2, 일탈 친구관계에서 지위 비행의 조절 효과

모형	R	R ²	수정된 R ²	추정 값의 표준 오차	통계량 변화량			유의확률 F 변화량	
					R ²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1	.166	.027	.025	1.469	.027	12.483	3	1325	.000
2	.192	.037	.034	1.462	.009	13.061	1	1324	.000
3	.213	.045	.042	1.456	.008	11.753	1	1323	.001

종속변인 일탈 친구

*** α .001, ** α .01, * α .05 수준에서 유의미

*모형1 예측값: (상수), 성별, 나이, 여가활동2

모형2 예측값: (상수), 성별, 나이, 여가활동2, 지위 비행

모형3 예측값: (상수), 성별, 나이, 여가활동2, 지위 비행, 상호조절

조절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살펴보기 위하여 <표 8>를 보면, 1단계에서는 먼저 여가활동2 변인을 투입하여 주 효과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모형1에서 모형적합도인 F값은 12.48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α .000), 여가활동2는 일탈 친구에 유의미한 변인(β =.087, α .01)로 나타났다. 이는 봉

표 8. 여가활동2, 일탈 친구 관계에서 일탈 행위의 조절 변인 관계

		모형1		모형2		모형3	
		B	β (.sig)	B	β (.sig)	B	β (.sig)
통제 변수	성별	-.432	-.145***	-.418	-.141**	-.406	-.136**
	나이	.086	.021	.088	.021	.113	.028
여가활동2		.154	.087**	.156	.088**	.131	.074*
지위 비행				.012	.098***	.011	.093**
여가활동2×지위 비행						.072	.094**
상수		.020		-.039		-.436	
R ²		.027		.037		.045	
수정된 R ²		.025		.034		.042	
F		12.483***		12.713***		12.604***	
R ² 변화량		.027		.009		.008	
F 변화량		.000		.000		.001	

나이

*** $p < .001$, ** $p < .01$, * $p < .05$ 수준에서 유의미

사 및 교내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할수록 일탈 친구가 더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모형1에 지위 비행 변인을 추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형2는 모형1에 비해 설명력(R²)이 증가했으며 F값은 12.71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0$). 모형2에서는 여가활동2 변인($\beta = .088$, $p < .01$) 및 지위 비행($\beta = .098$, $p < .001$)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여가활동2를 많이 할수록, 지위 비행을 많이 저지를수록, 일탈 친구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모형2에 지위 비행의 조절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호작용 항인 ‘여가활동2×지위 비행’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형3의 설명력은 모형2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F값은 12.603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모형3에서는 여가활동2($\beta = .074$, $p < .05$), 지위 비행($\beta = .093$, $p < .01$), 여가활동2와 지위 비행의 상호작용 변인($\beta = .094$, $p < .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가활

동2를 많이 할수록, 지위 비행을 많이 저지를수록 일탈 친구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활동2 변인이 일탈 친구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상호작용항이 조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가활동2 변인만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1>은 기각되고, <가설1.2>는 채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여가활동1 변인과 폭력행위 변인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모형1, 모형2, 모형3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조절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 여가활동1, 일탈 친구 관계에서 폭력행위의 조절 효과

모형	R	R ²	수정된 R ²	추정값의 표준 오차	통계량 변화량				유의확률 F 변화량
					R ²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1	.204	.042	.040	1.458	.042	19.256	3	1325	.000
2	.231	.053	.050	1.450	.011	16.021	1	1324	.000
3	.231	.053	.050	1.450	.000	.142	1	1323	.706

종속변인

일탈 친구

*** $p < .001$, ** $p < .01$, * $p < .05$ 수준에서 유의미

*모형1 예측값: (상수), 성별, 나이, 여가활동1

모형2 예측값: (상수), 성별, 나이, 여가활동1, 폭력행위

모형3 예측값: (상수), 성별, 나이, 여가활동1, 폭력행위, 상호조절

<표 9>과 같이 그 결과, R제곱의 설명력은 모형1에서 모형2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형3의 유의확률 F변화량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여가활동1 변인과 폭력행위 변인이 일탈 친구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음악, 미술, 체육활동 등과 같은 방과 후 여가활동 변인과 지위 비행 및 폭력행위 등 일탈 행위 변인의 상호작용 변인은 일탈 친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가설2.1>은 채택되지 않았다.

끝으로 봉사 및 교내 동아리 활동 등 여가활동2 변인과 일탈 친구 변인의 관계에 있어서 폭력행위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3단

계에 걸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의확률 F변화량이 모형3에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일탈 친구에 영향을 미치는 미치는 상호작용항의 조절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2>는 채택되지 않았다.

표 10. 여가활동2, 일탈 친구 관계에서 폭력행위의 조절 효과

모형	R	R ²	수정된 R ²	추정값의 표준 오차	통계량 변화량				유의확률 F 변화량
					R ²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1	.166	.027	.025	1.469	.027	12.483	3	1325	.000
2	.198	.039	.036	1.460	.012	16.282	1	1324	.000
3	.199	.039	.036	1.461	.000	.180	1	1323	.671
종속변인					일탈 친구				

***p<.001, **p<.01, *p<.05 수준에서 유의미
 *모형1 예측값: (상수), 성별, 나이, 여가활동2
 모형2 예측값: (상수), 성별, 나이, 여가활동2, 폭력행위
 모형3: 예측값: (상수), 성별, 나이, 여가활동2, 폭력행위, 상호조절

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형3에서 여가활동2와 폭력행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상호작용 변인의 조절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활동2가 일탈 친구에 미치는 영향과 지위 비행의 조절 효과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활동2와 지위 비행은 일탈 친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항은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활동2와 일탈 친구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일탈 친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하고, 특히 참여여가활동과 일탈 친구 관계에서 자신의 지위 비행은 조절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여가 활동은 일탈 친구 및 지위 비행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장계영(2012)도 여가와 일탈 친구, 지위 비행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 또래 집단과 보내는 시간이 많으며, 또래와 함께하는 여가 활동 과정에서 또래에게 인정받고 생각을 함께 공유하려는 경향이 많기에 또래의 영향력은 개인의 행동양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들은 여가 활동 및 사회적 과정 속에서 일탈적 집단과 비 일탈적 집단의 차별적 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의 결과에 따라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Sutherland와 Cressey(1974)의 이론을 지지한다(정현주 외, 2011:144). 즉 청소년은 혼자서 여가를 즐기기도는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일탈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이 일탈의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완희 외, 2018:229). 또한 윤경희, 장일식(2015)도 다문화 청소년에 관한 질적 연구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은 가족관계보다 친구관계로부터 더 많은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며 연구 대상자들의 경우

IV.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일탈 친구의 관계에서 지위 비행 및 폭력행위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문화 중학생 3학년 1,329명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6차 다문화 청소년 패널 데이터 조사를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다문화 청소년의 일탈 친구 관계에 여가활동1과 지위 비행, 폭력행위의 조절 효과를 살펴본 결과, 각각 모형 1, 모형2 단계에서는 여가활동1 변인과 지위 비행, 폭력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가활동1 변인과 지위 비행, 폭력행위의 상호작용 변인의 조절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여가활동2와 폭력행위의 분석결과 역시 모형1, 모형2에서는 일탈 친구 관

대부분 일탈 경험이 있는 친구들과 교우관계를 맺고 있거나 이들이 비행의 원인인 비행 친구와의 관계인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즉 이 연구의 결과 역시 다문화 청소년의 일탈은 대부분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를 지지한다(윤경희, 장일식: 2012:165).

특히 본 연구는 여가 활동과 일탈 행동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며 여가 활동이 일탈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하였는데, 허준, 이윤호(2012)도 청소년의 여가와 비행에 대해 분석하며 여가 활동으로 주로 스포츠를 하는 청소년은 음주비행과 연관이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신규리(2015) 역시 성별에 따른 지위 비행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면서 교우 관계에 있어 친구와의 애착은 남자 중학생의 경우 무단결석을, 여학생의 경우 음주와 흡연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일탈 행동은 일탈 친구와의 접촉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면에서 측면에서 1차적으로 일탈 행동을 감소하기 위한 가정 및 학교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즉 긍정적 사회 유대 관계를 통한 건전한 여가활용을 통해 일탈 친구와의 접촉 및 일탈 행동 감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긍정적 사회적 유대를 확립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의 활용이다. 이래혁, 김지선(2018), 이규영, 이다예(2017), 허청아, 김혜성, 김윤하, 그레이스정(2018) 역시 가족 및 사회적 기관이 비행 및 일탈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바 있고, 김현식(2016), 김춘경, 조민규(2018)도 유사한 맥락에서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지지 및 가족 관계가 일탈과 영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사회적 기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승원, 원도연, 박상현(2016)의 연구도 학교 스포츠클럽 및 교내 스포츠 동아리 등 선택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유대감 증진

을 위해서는 학교 및 지역사회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획일화된 여가 프로그램이 아닌,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차별화된 여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인관계중심의 여가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문화 청소년 27명에게 적용한 후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를 검증한 조민규, 최진이(2013)의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다문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여가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 이었고(Iso-Ashola & Crowley, 1991), 특히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특성상 청소년기보다는 아동기에 집중되어있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본 논의의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의 감소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방과 후 여가활동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V.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가족이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와 일탈의 직, 간접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다문화 청소년의 일탈 행위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라는 의의에 기반하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음악, 미술, 체육 등의 방과 후 활동이 다문화 청소년의 일탈 행위 및 일탈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 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의 일탈 친구 및 일탈 행동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식과 같이 획일화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겪는 청소년으로서의 정체성과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는 다양성 등의 이중적 고충

을 고려하여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여가프로그램의 질적 다양화가 절실하며 학교 교육과 완충적인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학교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방과 후 교실 등과 같은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오히려 일탈 친구와의 교류 및 일탈 행동을 증가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를 주지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지위 비행은 다문화 청소년의 일탈 친구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정, 학교와 같은 사회화기관에서의 문제로 인해 직접적 일탈로 나아가게 되고, 일탈 친구는 이 과정에서 만나게 된다고 설명하는 일탈이론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다. 즉 일탈 친구는 자신이 가정 내 부모와 관계 등의 문제로 인해 일탈을 저지른 후에 비슷한 성향의 일탈 친구를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일탈을 줄이기 위한 가정 및 학교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함의를 제공한다(Gottfredson & Hirschi, 1990; Hirschi, 1969).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일탈 친구의 관계에 자신의 일탈 행동이 조절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가 및 일탈을 설명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더불어 자신의 일탈 행동을 지위 비행과 폭력행위의 하위영역별로 검증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일탈에 관한 논의를 확장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받은 2차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표본을 일반화할 수 있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가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측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는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에 초점을 두고,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여가의 유형을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궤적의 연속성 상에서 진행하기를 제언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화, 배은경(2018).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적응유연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아동복지학**, 62(0), 131-164.
- 기광도(2012). 청소년 폭력비행에 관한 경험적 연구 : 가정, 학교, 친구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1(2), 61-86
- 김상수(2000). 청소년 여가와 비행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1), 23-43.
- 김순규(2001). 청소년의 학업 중퇴 결정요인: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201).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 (연구보고 10-R01)**. 세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식(2016).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가족 유형에 따른 일탈 행위의 차이 분석. **한국사회학**, 50(1), 41-74.
- 김현식, 김두섭(2014). 다문화 가족 청소년과 자살 행위. **한국사회학**, 48(2), 35-66.
- 김준호, 박미성(1993). 친구와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춘경, 조민규(2018).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을 매개로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지**, 34(4), 501-521.
- 노성호(1993). **한국의 청소년 비행화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박종구(2012). 여가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공격

- 성과 사회 재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논총**, 24(2), 3-24.
- 박현수(2008). **청소년비행과 친구**.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신규리(2015). 중학생 성별에 따른 지위 비행의 영향요인 연구: 여가 유형, 애착 및 부정정서를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13(2), 179-205.
- 양계민, 김승경, 박주희(2011). **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 II(연구보고 11-R07)**. 서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황진구, 연보라, 정윤미(2018). **다문화 청소년 중단연구 2018: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경희, 장일식(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 위험성 예측을 위한 탐색적 연구. **경찰학논총**, 10(1), 147-178.
- 이경상, 김진호, 오해섭, 김희진(2003). **한국청소년 패널조사(KYPS) I(연구보고 03-R15)**. 서울: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경상, 백혜정, 이종원, 김지영(201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I(연구보고 11-R10)**. 서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규영, 이다예(2017). 중고등학교 다문화 청소년들의 폭력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육문화연구**, 23(6B), 453-469.
- 이래혁, 김지선(2018).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폭력 피해 경험과 음주 행동의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개 효과.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5(1), 25-39.
- 이병호(2017). **경기도 다문화 가정 미취학 아동 지원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 이성식(1994). 구조적, 문화적 특성의 차이를 통한 청소년비행의 원인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17, 43-70.
- 이승원, 원도연, 박상현(2016). 청소년의 학교 체육 참여, 여가 스포츠 참여, 사회적 유대감, 폭력성 및 우울감과 인과관계 검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5, 411-422.
- 이학식(2008). **SPSS 14.0매뉴얼**. 학지사.
- 임성호, 문한식(2017).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의 스포츠여가활동 참여와 또래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56(4), 443-456.
- 장계영(2012). **청소년의 여가시간과 여가동반자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전경숙(2008).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6(1), 167-185.
- 정헌주, 김상호, 유해미, 이택면, 박창남, 박현수, 이해경, 민웅기, 이해진, 유문무, 김영선(2011). **사회문제의 이해**. 대왕사.
- 정혜원, 박정선(2008). 부정적 인생사건이 비행 시작 및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 미시적 요인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9(2), 273-308.
- 조남홍(2011). 여가스포츠 사회화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3), 83-102.
- 조민구, 최진아(2013). 대인관계중심 레크리에이션 참여가 다문화 청소년의 활동 역량증진에 미치는 효과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20(8), 325-346.
- 조아미(2005). 청소년 여가 동기와 문제행동 관계에 있어서의 여가 권태의 역할-폭력 행동과 약물사용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2(1), 85-101.
- 조윤동, 강은주, 고호경(2013). 2011년 수학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나타난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의 학교급별 성취 특성 분석. **학교수학**, 15(1), 179-199.
- 조혜영, 김정임(2018).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동아리 활동 참여 경험과 의미-학교생활 적응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61-296.
- 한국교육개발원(2018).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

- 서비스. 충청북도: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다문화 청소년 토론자(MAPS) 제1-5차 조사데이터 유저가이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허준, 이윤호(2012).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비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8(2), 213-240.
- 허청아, 그레이스정(2018).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 경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의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6(4), 177-190.
- 허청아, 김혜성, 김윤하, 그레이스정(2018).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 경험,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의 관계-학교 다문화 분위기의 조절된 매개 효과 검증-.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14.
- 통계청(2018). 2017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사회통계국.
- 통계청(2017). 인구 동향조사. KOSIS.
- Akers, R. L. (1998). *Social Learning and Social Structure: A General Theory of Crime*, Boston, MA: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Barnes, G. M., Welter, J. W. & Hoffman, J. H.(2002). Relationship of alcohol use to delinquency and illicit drug use in adolescents: Gender, age, and racial/ethnic differences. *Journal of Drug Issues*, 32, 153-178.
- Benedict, J. & Klein, A.(1977). Arrest and conviction rates for athletes accused of sexual assault. *Sociology of Sports Psychology*, 14, 86-94.
- Fisher, C. B., Wallace, S. A. & Fenton, R. E. (2001). Discrimination distres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 697-695.
- Goffredson, M.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liff: Stanford University Press.
- Hirschi, T. (1969). *Cause of Delinquency*. Berkeley. Calif: Free Press
- Hughes, D.(2003). Correlates of African American and Latino parents' messages to children about ethnicity and race: A comparative study of racial socializa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1, 15-33.
- Iso-Ahola. S. & Crowley. F. D.(1991). Adolescent substance abuse and leisure boredom.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3), 260-271.
- Matsueda, R. & Anderson. K.(1998). The Dynamics of Delinquency Peers and Delinquency Behavior, *Criminology* 36(2), 269-308.
- Meredith. B.W., Kenetia. F., Timothy. M. & Gleen. K.(2014). *The benefits of recreational programming on juvenile crime reduction: A review of literature and data*. National Recreation and Parks Association.
- Miller, T. R., Fisher, D. A. & Cohen, M. A. (2001). Costs of juvenile violence: Policy implications. *Pediatrics*, 107(1), 1-7.
- Shaw, C. R. & Henry D. M.(1969).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pruit. A., Vugt. E., Put. C., Stouwe. T. & Stams. G.(2016). Sport Participation and juvenile delinquency : A Meta-Analytic Review. *J Youth Adolescence*, 45, 655-671.
- Sutherland, E. H. & Donald, R. C.(1974). *Criminology*. Lippincott.
- 국제신문(2017).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523.33008224417>.
- 서울경제(2019).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0TP1VUW>.